

古典派 經濟學의 社會進步와 停滯狀態: 方法論的 觀點의 再照明*

金 光 壽**

논문초록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과제는 성장의 동화과정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경제발전의 귀결로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는 후일 경제학설사가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고전파 경제학의 동학이론에서 성장의 귀결이라고 인식된 정체상태의 성격과 의미를 고전파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재조명하고자 시도한다. 고전파 경제학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학문의 '과학적 연구'라는 지향 속에서 일반 원리 또는 이론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았고, 그러한 목적하에 가설-연역적 방법을 구사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사회현실의 개방성, 가변성 및 상대성을 인정했다.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중요성은 이 점과 관련된다. 셋째, 그들의 비전(vision)은 사회진보의 상태를 자연적 경향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기초한다면,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성격은 자본주의 사회가 장차 필연적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암울하고 비참한 사회에 대한 예언도 아니며, 또는 이론적 차원의 단순한 분석도구도 결코 아니다. 고전파 정체상태의 정확한 성격은 사회체계의 개방성 속에서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하나의 현실적 모습이다.

핵심 주제어: 고전파 정체상태, 스미스, 리카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1, B4

* 귀중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할 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e-mail: glaskim@skku.ac.kr

I. 머리말

경제학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에게 관심과 해명의 대상이 되어온 주요 과제들 중 하나는 국가 경제력의 문제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의 경제력 증가 즉 경제성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특히, 18세기 및 19세기 초의 산업혁명기를 전후하여 총체적 경제활동의 격변기에 제반 경제문제를 과학으로 해명하고자 시도했던 다수의 고전과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현상과 경제의 장기적 추세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과정으로서의 경제성장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국민 다수의 경제적 후생의 문제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체적인 국가 경제력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¹⁾ 이처럼 대중 빈곤의 해소와 국가 경제력의 제고라는 규범적 목적을 전제로 했던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경로와 사회발전의 단계에 대하여 연구지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던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에 연구지향을 가진 고전과 경제학자들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할 때, 고전과 경제학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라는 개념은 이미 언급한 경제발전의 과정과 사회변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관심과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그 논의의 귀결은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낳았다. 이는 고전파의 경제성장론이 사회진보의 지표라고 인식되었던 자본축적과 인구증가의 결과에 의해 역설적으로 성장이 궁극적으로 정지되는 정체단계의 도래가 마치 불가피한 것으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서, 고전과 경제학자들에 의한 경제발전의 동학적 과정의 묘사는 자본축적과 인구증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금은 생존비 수준으로 떨어

1) 고전과 경제학의 토대를 제공한 스미스가 경제학의 과제를 “국민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계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과 “국가 또는 연방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입을 공급하는 것”(Smith, 1776, p. 428)이라고 기술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고전과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경제학의 규범적 목적은 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한편 리카도는 자신의 주저(主著) 서문에서 경제학의 주요과제를 “분배를 좌우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Ricardo, 1951, p. 5)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제학의 원리”라고 명명된 『정치경제학 및 조세의 원리』의 제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실상(분배 및 가치론을 동태적 성장문제에 적용한) 경제발전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어지고 이윤율은 극히 미미할 정도로 낮아져 결국 축적의 동인이 사라지고 일반 사회적 빈곤을 초래하는 정체상태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전파 경제성장론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이 맬서스의 인구론에 근거하여 경제학에 명명한 “암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이후 많은 경제사상가들도 궁극적 발전단계로서의 정체상태에 대한 개념을 초점으로 하여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사회진보에 대한 비전을 비관적이고 우울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사실이다.²⁾

그러나 고전파 경제학자의 사회발전에 대한 비전을 비관론으로 규정짓는 견해와 대립되는 견해도 일부였지만 전혀 없지 않았다. 이러한 후자의 인식에 의하면, 고전파 경제학의 정체상태는 보통 알려졌듯이 경제과정의 실제 조건이나 필연적으로 도래할 현실이라기보다는 대안적 가능성의 제시를 위한 이론차원의 분석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고전파 경제학자는 단순히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정체상태라는 가상적 개념을 채택하고 있었을 뿐 현실에서 정체상태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거나 역사적 예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기된 논란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스미스 및 리카도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전파 경제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체상태의 개념과 의미를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이 조명해보고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³⁾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절에서는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성격을 둘러싸고 경제사상가들간에 전개된 논란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이어서 제Ⅲ절에서는 고전파 경제학자의 문헌에 기술된 사회발전에 대한 견해와 발전단계로서의 정체상태의 개념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의

2) 고전파 경제학자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예외에 속한다. 리카도의 생산 이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밀 역시 여타의 고전파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와 수확체감 법칙의 작용에 의해 이윤율의 하락과 정체상태의 도래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 정체상태의 특성이 빈곤과 생존투쟁에 의해 암울한 삶으로 점철된 국면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의 개혁과 사회구성원의 자조정신에 의해 질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이 구가되는 일종의 유토피아로 인식했다(Mill, 1965, pp. 752~757). 본 연구에서는 밀을 제외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정체상태에 대한 견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3)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고전파 경제학자는 주로 스미스와 리카도로 국한된다. 물론 모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스미스와 리카도는 여타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O'Brien, 1975), 적어도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정체상태에 대한 논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고전파 경제학자의 방법론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V절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론적 논의를 토대로 고전파 경제학의 정체상태의 성격과 의미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I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성격에 대한 논란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한 정체상태의 논의는 사회발전의 지표인 자본축적과 인구 증가에 의해 한 경제가 궁극적으로 자본축적의 유인을 상실하게 하는 정지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파에 의한 정체상태의 경제적 의미를 두고 고전파 경제학의 연구자간에 견해가 상치하는 부분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분류되는 제반 견해간에는 상호연관이 있으나, 이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고전파에 의한 정체상태의 의미를 사회발전에 의해 실제적이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최종 단계, 즉 실제 현실 속에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단계로 파악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경제분석의 역사』의 저자인 슈페터는 애덤 스미스를 포함한 고전파 경제학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애덤 스미스로부터 영국 고전파 학자들의 대다수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정체상태라는 용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과정의 실제 조건이었다”(Schumpeter, p. 562).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장기적 성장이론의 전개를 통해 사회진보의 최종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예언자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⁴⁾

반면에 일부 경제사상사가는 고전파의 정체상태를 실제로 기대되는 현실(future reality)과는 무관하고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취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하면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정체상태는 침체 또는 퇴보의 조건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이론적 구조물”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4)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리카도에 의해 논의된 정체상태는 일종의 ‘역사적 예언’(historical prediction)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문헌은 O'Brien (1981), Blaug (1985) 등이다.

고전파에게 있어서 “정체상태”는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보다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분석도구(conceptual device)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고전파 동학이론에 의해 나타난 바다로 성장하는 경제의 장기적 운동과 정체상태로의 귀결을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불변의 자연철칙’이나 ‘필연적인 역사법칙’ 등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마르크스의 ‘임금의 철칙’(iron law of wages)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를 가지는 이러한 유형의 해석은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대 사상사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저명한 경제사가이며 사상사가인 딘(Phyllis Deane)은 다음처럼 기술한다. “고전파의 동학이론은 근본적으로 정체상태로의 이행에 관한 이론이다. …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정체상태로의 추이는 장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필연(historical necessity)이었다”(Deane, 1978, p. 38).⁶⁾

그런데 이처럼 정체상태의 도래를 인류가 맞이해야 하는 일종의 자연법칙으로 정식화하는 해석과는 달리 일부 연구자들은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정체상태란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특정 가설에 입각한 하나의 가능성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홀랜더(Samuel Hollander)는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동학이론과 경제모형의 역할은 특정한 역사적 사실의 예측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미래에 무슨 사안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정책목적을 위해) 몇 가지 선택적인 반응유형(alternative reaction patterns)하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⁷⁾

셋째, 고전파 성장이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도래할 정체상태를 근거로 상당히 많은 문헌에서 고전파 경제학자의 비전을 비판론으로 언급했다. 실상 칼라일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사상가들은 경제발전과 관련된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의 비전과 체계를 비판론적이라고 규정했다.⁸⁾ 그런데 주로 19세기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 즉 정체상태로의 동학적 진행과정을 설명한 리카도-맬서스의 체계를 중심으로 언급되던 비판론이 근래에 스미스의 비판적 역사관으로 확대되

5) Winch(1996, p. 368). 또한 Kolb(1972, p. 245)를 보라.

6)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맬서스와 리카도는 “정상상태의 도래를 자연법칙의 귀결이며 불변의 철칙으로 신봉”(장오현, 1992, p. 53)했다고 표현된다.

7) Hollander(1986, p. 175). 또한 Hollander(1982, pp. 241~242)를 참고하라.

8) 예컨대, Gide and Rist(1915, p. 133), Haney(1949, p. 165), Roll(1953, p. 186), Schumpeter(1954, p. 570), Heilbroner(1986, p. 103)를 보라.

는 경향도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한다.⁹⁾ 예컨대, 하일브로너는 스미스에게 있어서도 19세기 후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저하, 인구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의 체감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진보상태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체상태로 귀결되는 경제성장과정을 그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일브로너는 더 나아가 『국부론』에서 특정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스미스의 비관론적인 언급을 그의 동학과정 내지는 철학적·역사적 관점의 표명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세기 동안 누적된 수많은 연구결과 『국부론』에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스미스의 철학적·역사적 비전에 대한 주요 문제는 그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되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즉 지금까지 덜 부각되었던 스미스의 사상은 그의 진보의 경제사회이론 뒤에 숨겨진 심원한 비관론이다”(Heilbroner, 1975, p. 524).

이와 같이 고전과 경제학을 비관적 체제라고 규정한 사상사가들과는 달리,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고찰한 정체상태란 단순한 분석도구에 불과하며 현실의 다양한 구조 중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시각에서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미래 선진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대해 비관론을 견지했다는 점을 부인한다.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는 당시 자신들의 조국인 영국 경제가 실제로 정체상태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미래 사회발전의 추이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¹⁰⁾

그렇다면 이처럼 정체상태의 성격을 둘러싼 연구자들간의 논란의 소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제Ⅲ절에서는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스미스와 리카도의 문헌에 나타나는 정체상태의 개념과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9) Heilbroner (1975), Wrigley (1994) 등에서 발견된다.

10) “리카도는 자신의 정책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체상태가 경제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리카도는 곡물법이 폐지된다면 미래 경제는 개선될 것이지만, 곡물법 자체가 지속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정체상태는 리카도의 비전의 부분을 형성하지 않았다”(Kolb, 1972, pp. 246~247). 또한 Hollander (1979, pp. 599~642)를 보라.

Ⅲ. 고전파의 사회진보와 정체상태

1. 애덤 스미스

널리 알려진 대로 스미스에게 있어서 경제학의 목적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미스는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제변수로서 크게 자본축적과 분업을 거론하였다. 이 두 요인이 상호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확대재생산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자본축적과 분업이 상호작용하여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 임금상승과 수요증가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성장의 선순환이 꾸준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축적을 통해 발생한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 시장확대와 같은 순환고리에 의해 중단없이(hitchless)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경제의 장기적인 동학 과정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로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것이 사실이다.¹¹⁾

그런데 이상과 같은 한계 없는 지속적 성장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는 달리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실제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부론』 제1편의 임금 및 이윤을 논하는 부분에서 스미스는 한편으로 진보하는 경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체상태에 도달하거나 또는 퇴보하는 상황에 처한 국가도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한 나라 경제가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제상황은 번영상태, 정체상태, 퇴보상태 등으로 구분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번영상태(thriving state)는 한 나라의 국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태로서 지주의 수입, 기업가의 자본 및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계급과 구성원에게 후생의 증대를 수반하는 상태라고 묘사한다. 이처럼 계속 진보하는 경제에서는 국부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11) 상당히 많은 경제사상가들은 스미스의 경제성장 모형은 제한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낙관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스미스의 성장론에 접근하는 주요 문헌은 예컨대, Lowe(1954), Schumpeter(1954), Richardson(1975), Eltis(1975), O'Brien(1975), Reid(1987) 등이다.

이와 반대로 퇴보상태(declining state)에서는 한 나라의 자본소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은 생물학적인 생존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줄어들지만, 생존임금에 따른 낮은 생산비용과 높은 상품가격의 이점을 누리는 자본소유자의 이윤은 지주계급의 전체 지대를 흡수할 정도로 커진다고 한다. 이러한 퇴보상태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급에서 결핍, 기아와 사망이 만연하며, 따라서 인구는 수입과 자본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정도까지 격감하는 참혹한 상태라고 한다. 스미스는 벵골이나 동인도의 영국식민지를 퇴보상태의 전형으로서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는 국부의 지속적인 증가 이후 인구나 자본이 과잉상태가 되는 단계에서 도래한다고 한다. 스미스는 정체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토양과 기후, 그리고 타국들과의 위치가 한 나라에게 허용하는 부를 이미 완전히 획득한 나라, 그리하여 더 이상 진보할 수도 없지만 퇴보하지도 않는 나라에서는 노동임금과 자본이윤은 아마 매우 낮을 것이다. 영토나 자본이 유지 또는 고용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과잉인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는 취업경쟁이 필히 격렬해지기 때문에 노동임금은 노동자들의 수를 유지하는 데 겨우 필요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미 인구가 과잉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는 결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비해 과잉자본을 가진 나라에서는 각각의 사업의 성질과 규모가 허용하는 최고의 자본량이 각 분야에 투하된다. 따라서 자본가간의 경쟁은 어디에서나 최대일 것이고, 일반적 이윤은 최저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풍요에 도달한 나라는 아직 없다”(Smith, 1776, p. 111).

이상에서 보듯이 문헌상 성장하는 경제에서 정체상태로의 이행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진보상태, 정체상태 및 퇴보상태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그 각각의 특징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부론』에서 스미스의 관심과 논의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자본축적과 분업의 상호작용 및 선순환에 의한 경제진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진보상태에 귀결되고 있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과정에서 정체상태 또는 퇴보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²⁾

2. 데이비드 리카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스미스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존재하는 세 가지 개별적인 경제 상태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진보상태에서 정체상태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체계적·분석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리카도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 경제가 사회진보와 자본축적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정체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동학과정을 묘사하고 그 이행과정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특색이 있다.¹³⁾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리카도에게 있어서 경제발전의 주요한 동인은 자본의 축적이다. 자본축적으로 인하여 재화의 추가생산과 가치의 증대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리카도에 의하면 자본축적은 이윤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사회발전에 따라 이윤율의 분배 몫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정지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즉 자본축적으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임금의 상승을 불러온다. 생활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의 보수를 상회하는 임금의 등귀로 말미암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고 곡물가격과 지대가 오르게 된다. 곡가의 상승은 자연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투자의 원천인 이윤을 계속 압박하며, 이는 결국 자본축적을 저지하고 사회발전을 멈추게 할 것이다. 리카도는 이처럼 자본축적의 진전에 따라 사회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제상태를 정체상태라고 지칭하였다. 리카도의 표현에 의하면, 정체상태에서 “자본은 어떠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고 어떠한 추가적 노동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구가 그 최고 정점에 도달한다”(Ricardo, i. 120) 라고 한다.

그러므로 리카도는 맬서스의 인구법칙과 농업에서의 수확체감 법칙의 작용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이윤율이 자연적으로 하락해 결국 영(zero)에 접근하는 상황에 봉착한다는 논리전개를 통해 자본축적이 한계점에 도달되는 경제의 동학과정을 이

12) 이러한 정체 또는 퇴보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입각하여 스미스의 성장론을 리카도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문헌은 Spengler(1959), Heilbroner(1975), Samuelson(1978) 등이다.

13) 리카도의 경제의 장기적인 동학과정의 묘사는 소위 ‘곡물모형’(corn model)으로 지칭된다. 리카도의 곡물모형에 대해서는 Blaug(1958, pp. 12~15), O'Brien(1975, pp. 37~41), Hollander(1979, pp. 7~8) 등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리카도의 곡물모형은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으며(Myint, 1977, p. 511), 기술진보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West, 1982, p. 316) 특징을 지닌다.

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전적인 사회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부와 인구가 최대한으로 증대되고 자본축적이 정지되는 정체상태가 사회변화의 최종단계로서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상기의 논리가 명확히 전개되는, 리카도의 대표적 저서인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이외의 다른 저작집을 살펴보면 그에 의해 이론적 차원에서 정연하게 도출된 정체상태의 도래가 과연 실제적 차원에서도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는가를 새삼 재고하게 하는 내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카도는 일정한 조건하, 즉 농산물을 자급자족하지 않고 외국과의 교역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 한 국가의 성장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어느 국가가 전체 식량의 자체 공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국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식량의 일정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이에 대해 제조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국부와 국력의 향상이 있게 된다”(Ricardo, v. 180).

실제로 리카도는 자신의 조국인 영국을 포함해서 당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론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정체상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동시에 농산물 및 제조품 등에 대해 외국과의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축적과 인구의 성장이 정지되는 정체상태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도 진보의 정도로 볼 때 최고점에서 아주 멀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외국 무역을 통해 그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다면 그 국가조차도 국부와 인구에 있어서 무한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진보할 것이다. ... (자원의 결핍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농산물과 원료가 제조상품과의 교환으로 외국에서 공급된다면 자본 축적과 이윤 획득을 중지시키는 한계점이 어디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Ricardo, iv. 179).

결국 리카도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성장의 동학과정은 정체상태로 귀결되지만,

외국과의 자유교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채상태의 도래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스미스의 저작에서는 분석적으로 진보하는 경제를 상정하면서도 이와 대비되는 정채상태의 가능성이 기술되고 있으며, 리카도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정채상태로의 추이에 대한 분석이 명확히 제시되면서도 선진경제로부터 정채상태로 이행하는 한계점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IV. 고전과 정채상태와 방법론

이처럼 고전과 문헌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정채상태에 대한 논의가 이미 제2절에서 언급한 논란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채상태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기존의 견해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이를 재조명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인 스미스와 리카도 등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구사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제발전론에서 '또 다른 경제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전과 경제학의 관점의 조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본 절과 다음 절의 주제이기도 하다. 먼저 스미스와 리카도의 경제학 방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일반원리의 추구

고전과 경제학자들의 방법론적 특징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점은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반원리(general principles) 또는 이론(theory)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17세기 과학혁명을 불러일으킨 뉴턴(Isaac Newton)의 영향에 의해 자연과학자들이 다양한 자연현상의 배후를 관통하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리 또는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했던 것처럼, 18세기 이후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탐구의 대상은 우연하고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사물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지배적 일반원리 내지는 이론으로서 인식했다. 그리고 고전과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일반원리 내지는 이론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원리로서 나타나지만, 사회과학에서의 일반원리 및 이론은 순수 논리적 또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

험적 방법(empirical method)을 이용하여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미스는 자연의 세계에서 소수의 일반원리가 다양한 제사실의 배후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본다(Smith, 1759, p. 321 참고). 그러므로 자연의 모든 현상의 배후에 소수의 일반원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과학의 대상은 “자연에 존재하는 연결원리” 또는 “각양각색의 여러 현상을 함께 묶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Smith, 1980, p. 45)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사회과학의 방법 역시 자연세계에 대한 탐구대상의 방법과 크게 다르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여러 사회현상의 원인으로서의 연결원리 또는 일반원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과제라고 지적한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처럼 명시적으로 말한다. “소수의 설명원리에 의해 자연의 여러 현상이 정리·정돈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격언들도 체계적인 순서로 소수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연결되었다. 이렇듯 사회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연결원리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과학을 도덕철학이라고 부른다”(Smith, 1776, p. 769).

리카도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채택한 방법론에 대해 별도로 기술한 바는 없지만, 그 시대 논쟁의 맞수였던 맬서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과학의 연구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동 서신에서 리카도는 자신의 주요 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학의 탐구방법은 단순한 사실로부터의 귀결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현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제학의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의 목적은 ‘경제학의’ 제반 원리를 조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반 원리의 작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경우들(strong cases)을 가정했다”¹⁴⁾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카도의 방법론적 특징은 19세기 초 영국의 지금논쟁(地金論爭, bullion controversy)¹⁵⁾의 과정에서 나온 그의 입장, 즉 흄(David Hume)의 화폐수량설에 근거하여 환율변동을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리카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¹⁶⁾

14) Ricardo(1951, viii, 184).

15) 1793년 나폴레옹전쟁과 더불어 금의 해외유출과 금준비 감소로 인하여 영국은 1797년 금태환을 중단했다. 금태환 정지 이후 발생한 금가격 급등, 물가상승과 파운드화의 대외시세의 하락에 대하여 1801~1804년 및 1808~1811년 사이에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와중에서 발생한 논쟁을 말한다.

“함부르크 거래소와 파리 거래소의 (통화간 대외시세) 제정을 비교하면서 양측의 제정이 부정확하고 또한 사실(facts)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에만 의지하고 이론(theory)에는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과 같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들이 가진 사실을 걸러낼 방법이 거의 없다. 그들은 준거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에 속기 쉽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Ricardo, iii. 181).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스미스와 리카도에게 있어서 경제현상 분석의 전제로서의 이론의 중요성 내지는 현상해석의 도구로서의 이론의 불가결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다.

2. 가설-연역적 방법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일반성을 지닌 원리 내지는 이론의 탐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경제학의 과학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경제학의 역사에서 소위 ‘고전학파’(classical economics)로서 평가받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경제학의 일반원리 및 이론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까? 경제학의 일반원리 내지는 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서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해 선호되었던 방법은 귀납법(induction) 보다는 가설-연역적 방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이다. 고전파 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징은 가설-연역적 방법에 의하여 경제모형(economic model)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형

- 16) 지금(地金) 논쟁에서 리카도는 지금파(地金派, bullionist)의 전통을 이어받아 화폐수량설적 측면에서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은행권의 과잉발행에서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했던 반면에, 반지금주의자(反地金主義者, anti-bullionist)였던 잉글랜드 은행의 보생크(Bosangquet)는 리카도가 근거로 삼은 이론(화폐수량설)에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 사실(facts)을 반증으로 제시했다. 리카도는 보생크가 제시한 사실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사실을 검토할 수 있는 준거 틀로서의 이론(theory) 없이 사실의 일관성이나 사실간의 모순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보생크는 이처럼 확고한 경험의 바탕 위에 성립된 이론이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한두 개의 고립된 사실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Ricardo, iii. 165) 한편 리카도는 곡물법 논쟁과 관련된 맬서스와의 서신에서 자신의 ‘곡물모형’에 의한 전망과 상이한 사실(즉 이윤율의 상승)의 관측된다고 해서 자신의 이론이 반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론의 우위를 강조한다. 그는 환경변화와 생산여건의 개선과 같은 조건이 변화하면 이론에 의한 예측과는 다른 관측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밝힌다(Ricardo, vi. 94~95 참고).

을 통해 가설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현상을 해석 내지는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발견된다. 주요 고전파 경제학자는 추론이 시작되는 몇 개의 전제를 경험적 현실에 대한 관찰(observation) 또는 내성(introspection)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연역적 방법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적 성격을 지닌 함축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고전파 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스미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귀납적 방법보다는 뉴턴의 가설-연역적 방법을 선호하였다. 스미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작업에 있어서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귀납법을 통한 일반법칙의 확립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인의 존재에 의하여 수립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작업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과학적인 연구에서 매우 탁월한 방법은 잘 알려진 소수의 전제(또는 공리)로부터 시작하여 연역적인 과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확립하고 예측적 함축을 도출하며 이를 예증 또는 확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가설-연역적 방법이라고 본다.

스미스의 순수경제이론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전제로 이기심 또는 이윤극대화 행동 가정에 입각하여 동태적 환경에서의 경제발전모형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국부론』의 핵심이론인 경제발전론에서 스미스는 자본가의 이윤극대화 동기를 기본적인 원리로서 가정하면서 각 산업부문에 존재하는 자본생산성의 차이, 즉 동일한 자본으로 각 산업부문에 투자했을 경우 농업, 제조업, 상업 순으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원리(보조가설)를 전제로 삼았다. 스미스는 이론적으로 이윤극대화 가정과 투자순위(investment priorities)의 보조가설을 전제로 하여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농업-제조업-상업 순의 자연적 경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체계는 소수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경제성장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설-연역적인 방법에 따른 논리 전개를 수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리카도의 방법론도 스미스의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¹⁷⁾ 간혹 리

17) 스미스와 리카도의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가설-연역적인 방법의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Hollander, 1987, p. 338)이 스미스의 '총괄적' 방법론(methodology in general)이 리카도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의 방법론은 뉴턴식의 연역법 이외에도 귀납법과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방법과 미학 중시의 협약론적 관점(conventionalist approach)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미스 방법론의 종합적 개괄은 Redman(19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도의 방법이 스미스의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연역적 경제분석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과학적 경제학(scientific economics)을 개척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¹⁸⁾ 하지만 실상 리카도의 방법은 스미스가 구사한 분석방법을 계승하면서 경제모형구축에 있어서 좀더 엄밀하고 세련된 논리적 구성을 추구한 것에 불과하다. 리카도의 방법은 먼저 출발선 상에서 분석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들을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가정하고, 소수의 엄밀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경제행동의 배후에 있는 제반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정식화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널리 알려진 리카도의 곡물모형(corn model)은 자본가의 이윤극대화 가정을 전제로 하여 단일 투입물(노동과 자본의 결합)이 존재하고 토지에서 수확체감이 발생하며 맬서스의 인구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소수의 변수와 원리(보조가설)에 의해 간결한 경제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복잡한 경제과정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리카도 이후의 주류경제학에서 과학적 경제학의 수립을 위한 탐구방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¹⁹⁾ 이러한 점에서 리카도의 동시대인이며 리카도 경제학의 정교화에 기여했던 토렌스(Robert Torrens)에 의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리카도의 가설-연역적 방법의 성격을 매우 적절히 요약해 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심원하고 독창적인 사상가의 저작 속에서 정치경제학은 우리 시대의 어느 학자의 저작보다도 추상적인 과학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든 추론은 가설적이다. 그의 결론은 가정된 전제하에서 필연적인 진리가 된다. 그러므로 만일 가설적 상황과 실제 현실간의 차이에 대해 조정한다면 그러한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 그가 도달한 결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상은 그릇된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그가 가정하는 사실과 매우 일치하고 있으며, 가정된 사실과 실제 현실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정을 통해 수정된다면 그 결론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²⁰⁾

18) Blaug(1958)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19) Blaug(1978, pp. 140~148)을 보라.

20) Robert Torrens, The Budget(1844), p. xiii. O'Brien(1975, pp. 69~70)에서 재인용.

3. 사회현실의 개방성 인정

이미 앞에서 언급한 고전과 경제학의 방법론상 특징을 거론할 때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주요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사회체계의 개방성(open social system)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고전과 학자들은 현실 속에서 관측되는 경험적 현상을 이론체계 속에서의 가설적 요인과 가설에서 거론되지 않은 여타 요인의 영향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곤란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방법론적 특징과 결부하여 사회현실의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고전과 경제학의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고전과 경제학자들에게 사회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현상은 (결정론적인 단일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실현된다. 둘째, 그러나 가설-연역적 방법에 의한 이론체계의 구성에서는 주어진 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원인 내지는 메커니즘만이 조명된다. 셋째, 이는 이론체계 속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 '현상적 차원(level of observation)'에서는 (자연적 필연성 또는 필연성을 띤 자연법칙의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경향성(tendencies)이 있는 사실로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주요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몇몇 제한적인 전제(가정 및 명제)들을 바탕으로 구축된 경제모형(economic model)과 실제의 경제현실(economic reality)의 두 측면을 전적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경제모형을 근거로 경제현실을 조망·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의 과학적 성격 수립에 중요한 전제가 됨을 인식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경제모형은 현실의 단순화에 불과하며 경제현실은 실상 경제모형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요인(multi-causality)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경제현상은 불특정 다수의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적 산물이므로 경제모형에서 가정되고 있는 제한적인 전제로부터 도출된 함축사항 또는 모형 내에서의 법칙적 인과관계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경우 경제성장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상기한 내용이 잘 드러난다. 스미스의 성장경로모형에 의하면 성장의 동태적 질서는 농업, 제조업, 그리고 외국무역의 순서이다. "사물의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따르면 모든 성장사회의 보다 많은 자본은 일차적으로 농업에 지향되며 다음에는 제조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국무

역에 지향된다”(Smith, 1776, p. 380). 하지만 이러한 스미스의 경제모형에 입각한 결론은 예를 들어 제도와 정책적 제약요인 등의 영향이 불변이라고 가정된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나라에서 특정 산업부문으로의 투자를 장려 내지는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채택하고 있거나 사람들의 상이한 관습과 행태가 작용한다면 현실의 경제현상은 경제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스미스가 자신의 모형을 통한 주장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언제나 관찰되어 왔다고 나는 믿는다”(Smith, 1776, p. 380)고 말하면서도, 경제사적으로 볼 때 (전근대적 국가의 관습과 행태의 영향으로) 실상 이론적 성장경로대로 근대 유럽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사물의 자연적 순서가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재한 것은 틀림없지만 나는 유럽의 모든 근대국가에서 이 순서가 많은 측면에서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고 믿는다”(Smith, 1776, p. 380).

엄밀한 연역적 방법론을 구사하여 법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시도한 리카도 역시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경제현실의 개방성과 역사적 상대성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으며, 보통 지적되고 있는 바대로 단순한 교조주의적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리카도가 학문적인 경쟁자였던 맬서스에게 보내는 한 서간에서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한 가설채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서 리카도는 가설의 도출을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관측되는 경제현상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내가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면 당신(맬서스)은 지나치게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상당히 많은 작용원인(operating causes) 또는 이들의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변화의 모든 원인이 고찰되고 그 효과가 적절히 측정되지 않는 한, 특정한 학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험에 호소하는 방법에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Ricardo, vi, 295).

이와 같은 사회현실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은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도 발견된다. 리카도의 소위 ‘곡물모형’에 의하면, 국민 다수의 빈곤은 자본축적과 임금기금 증가에 따라 인구가 보다 빠르게 조정되는 경향이 작용함으로써 일상화된다. 이러한 모형에서 국민 빈곤의 원인은 토지의 수확체감과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식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모형을 통한 논리전개와는 달리 리카도는 현실적으로 한 국가의 빈곤은 많은 다른 요인, 즉 소유자원의 풍족 여부,

국민의 관습과 태도, 정부의 통치능력, 기술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파악한다. 예를 들면, 토지가 풍부하고 비옥한 나라의 경우에 빈곤의 문제는 모형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인구증가에 의해 초래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이러한 유형의 국가의 빈곤은 국민의 무지, 나태 및 야만성이나 또는 소유권 정책의 부재, 대중교육의 미비 등 정부의 부적절한 통치에 의해 초래되는 낮은 노동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카도는 빈국의 정책은 무지와 나태를 벗어나서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새로운 필수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호가 개발되도록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발전단계상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부국의 경우 빈곤 문제의 해로서 인구억제 정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한다.²¹⁾

4. 비전(vision)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정제상태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방법론적 단서는 그들에 의해 견지된, (세계관, 가치판단, 개인적 열망 등을 내포하고 있는) 비전(vision)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본다.²²⁾ 스미스와 리카도는

21)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를 풍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주민들의 무지와 태만, 그리고 야만성 때문에 궁핍과 기근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해악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가 생존수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여지는 국가”와 “원료생산물 공급의 수확체감법칙으로부터 과잉인구의 모든 해악을 경험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정제된 나라”의 두 형태에 대해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자는 저 인구, 저생산성으로부터 오는 저개발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탁월한 정부기능의 제고와 교육의 필요성이 그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후자는 과잉인구로부터 비롯되는 빈곤이 문제이므로 인구의 감소와 자본축적의 증대를 후생증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Ricardo(1951, i. 99-100)를 참고하라.

22) 비전은 “과학적 분석 이전의 인지적 행위”(preanalytic cognitive act)로서 총체적인 과학활동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선행조건이라고 파악된다. 슈페터(Schumpeter, 1954)는 비전은 과학적 분석의 이전 단계에서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문제의 선택이나 접근방법에 영향을 줄뿐 과학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슈페터 이후의 과학철학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비전(세계관)은 경험적 세계의 진위 여부에 의존하지 않으나 현실 세계의 묘사를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는 관계로 과학적 분석에서 방법론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비전은 세계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방식을 연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분석에 규제적·통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며, 사회변화의 방향 또는 한계에 대한 일반적 기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Watkins(1958), Agassi(1964), Glass and Johnson(1989), Heilbroner(1990)를 참고하라.

진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소신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학자로서의 스미스의 비전은 진보(progress)에 대한 발언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스미스는 그의 저서의 여러 부분에서 사회의 자연적 진보(natural progres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개선을 향한 사물의 자연적 진보”(Smith, 1776, p. 343; 1978, p. 207) 또는 “부와 번영을 향한 한 나라의 자연적 진보”(Smith, 1776, p. 674)가 존재한다고 말한다.²³⁾ 이러한 진보에 대한 스미스의 믿음은 스미스의 동시대인이며 최초 전기 작가인 스튜어트(Dugald Stewart)의 진술 가운데서 더욱 확연해 진다. 스튜어트는 『국부론』을 통해 스미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지가 외부적인 환경과 인성의 원리 가운데 이미 ‘내재된’(자연에 의해 각인된 것으로 표현) 국부의 점진적인 증가를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총체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스미스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경제성장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mith, 1980, p. 315).

고전과 경제학자 중에서 엄밀한 추상적·연역적 방법론에 집착하여 ‘이론가’로 불리는 리카도는 도덕철학자였던 스미스만큼 철학적 비전과 명확한 용어의 구사에 의해 자연적 진보에 대한 신념을 자주 피력한 것은 아니지만, 국부의 자연적 진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리카도는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퇴보상황은 언제나 사회의 비자연적인 상태(unnatural state of society)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한다. 사람은 유년에서 성인까지 성장한 이후 쇠퇴하고 죽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모든 국가의 진보과정은 아니다. 가장 생장력(生長力)이 왕성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국부의 추가적인 진보가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국부와 인구의 증가를 유지하는 것이 진보의 자연적인 경향(natural tendency)이다”(Ricardo, i. 265).

물론 이러한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일시적으로 우연히 표출된 것은 아니며 리카도

23) 이러한 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스미스의 다양한 문헌에서 전개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컨대 스미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학적 지식의 진보라든가 언어의 진보를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도덕률의 진보 및 법과 통치의 진보를 입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보여주는 문헌은 Meek (1976, pp. 116~127), Skinner (1979, pp. 68~103) 등이다.

에 의해 견지된 불변의 소신이었다. 이러한 자연적 진보에 대한 신념은 그의 주저(主著) 이외의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리카도는 1820년에 집필된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4, 5, 6판)의 한 논고("Funding System") 가운데, 경제성장은 지구상에서 최종적으로 식량 및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한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구차원의 자원의 한계가 도래하지 않는 한 "가장 선진적인 경제조차 무한한 기간동안(for an indefinite time) 국부 및 인구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Ricardo, iv, 179)고 하였다.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가 정지하고 정체상태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자연의 한계가 도래하는 시점을 배제한다면,²⁴⁾ 성장에는 한계가 없으며 지속적인 사회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V. 방법론, 공공정책 그리고 정체상태의 이해

지금까지 고찰한 대표적인 두 고전파 경제학자의 방법론과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규정하고 있는 '정체상태'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하자. 스미스와 리카도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현상의 일반원리 또는 이론을 탐구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로 가설-연역적인 방법을 구사하여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예측적 함축이 내포된 견해를 제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두 경제학자 모두 (경제모형에서 분석되는 차원과는 상이한) 사회현실의 개방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성은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실제 경제현실이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또한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의 동시적이고 때로는 불비례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현상

24)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자원은 유한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경제학적 논의의 와중에서는 '자연의 무한성'을 가정했다.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은 상품생산에 제한이 없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한 무한의 자연에 대한 가정을 매우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생산의 추가적 증가가 더 이상의 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지구(earth) 능력의 한계에 의해 중단되는 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제학의 목적으로 볼 때, 이러한 관념적인 한계(ideal limit)가 실제적인 한계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Mill, 1965, p. 464). 스미스에 있어서도 자연의 무한성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은 Lowe (1975, p. 417)에서 지적된다.

(appearances)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언제나 동일하거나 일관성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론적 측면이 고려된다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저작에서 언급한 정채상태는 기존의 경제사상가들이 평가해 왔던 바대로, 단순히 불변의 자연철칙이나 역사적 필연 내지는 멀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궁극적인 경제상태 등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고전파 경제학의 성격이나 비전을 “암울한 학문”으로 규정짓거나 심원한 비관적 철학의 표명 등으로 진단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정채상태가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경제의 현실적 한계로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단순히 정채상태의 개념을 이론적 차원의 분석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후자의 인식은 과학적 관점에서 실제의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예측적 의미를 도출하려고 시도한 고전파 경제학자의 방법론적 의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해석보다는 이미 언급한 고전파의 방법론에 근거할 때 정채상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즉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potential reality)로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⁵⁾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핵심 논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경제학의 경제발전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 또는 공공정책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²⁶⁾ 스미스는 『국부론』 1편에서 진보, 퇴보, 정채 등 다양한 경제상태에 대응하는 임금과 이윤의 크기 변동을 논하는 가운데, 정채상태에

25) 이미 언급된 방법론에 근거했을 때 고전파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정채상태가 잠재성을 지닌 상태라는 점은 정채상태가 ‘실재적’ 차원(level of deep realities)에서 인과관계를 지닌 하나의 경향(tendency)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현상적 차원(level of appearances)에서는 실재적 차원의 여타의 상반되는 원인(counterbalancing factors or mechanism)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상적 필연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전파의 과학적 인식론은 일종의 선험적 실재론(transcendental realism)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작용 메커니즘은 실현가능성(potentialities)을 가진 하나의 경향으로만 제시된다. 선험적 실재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Lawson(1997, pp. 20~23)을 보라.

26) 이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상이했음을 의미한다. 후자에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생적인 특성을 지닌 정부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전자는, 오늘날 노스(Douglas North, 1989) 또는 신제도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이 인식하는 바대로, 정부의 역할과 경제발전간의 인과관계 내지는 순환작용을 논의의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제영역과 정부영역과의 내생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도달한 국가의 유일한 사례로서 13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의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스는 당시 중국의 정체상태가 성장의 궁극적 한계로서의 최종 단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스미스에 의하면, 중국은 당시의 “법률과 제도가 허용하는” 정도의 국부 수준에 도달하여 정체되고 있을 뿐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공공정책의 운용, 즉 대외무역정책 및 법률과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허용하는 부를 이미 오래 전에 획득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부는 상이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될 때 중국의 토양, 기후, 위치가 허용하는 정도의 부의 크기보다 훨씬 적다. 외국무역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며, 외국선박을 한두 개의 항구에만 허용하는 나라는 상이한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동일한 양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부자나 거대자본의 소유자는 상당한 안전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소자본의 소유자는 안전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하급관리에 의해 정의의 미명하에 강탈당하는 나라에서 각종 사업분야에 고용되는 자본의 양은 그 사업의 성질과 규모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 도달할 수 없다”(Smith, 1776, pp. 111~112).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당시 중국의 폐쇄적인 무역정책이 성장과 진보를 방해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체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권 보호제도를 포함한 정의(justice)에 위반되는 사법제도의 운용이 정체상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장기적인 정체상태에 머문 경우에도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사법정책을 운용하는 경우 계속적인 경제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미스에게 있어서 정체상태는 발전단계를 거쳐 역사적으로 귀결되는 필연적인 단계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정의 및 사회적 효용의 원리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수행에 의해 국면전환이 시도될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나타난다.

리카도가 견지한 정체상태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공공정책의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역시 매우 중요하다. 리카도는 외국과의 무역개방을 통해 교역자유화가 실현되면 성장하는 선진국가에서 정체상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한다. 리카도는 경제성장의 한계는 식량 및 다른 천연원료의 결핍과 이러한 상품들의 높

은 가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리카도는 이러한 성장의 한계마저도 국가의 자유무역정책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경제에 의한] 국부 및 인구 증대에 대한 유일한 장애요인은 식량 및 여타 원료의 부족과 이로 인한 계속적인 높은 가격이다. 제조업 제품과 교환하여 이것들(식량 및 원료)이 해외로부터 공급된다면, 부의 축적과 이윤창출이 정지되는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를 말하기는 어렵다”(Ricardo, iv. 179) 라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리카도가 상징하고 있는 정채상태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어떠한 경우든지 경제체제가 필연적으로 도달하도록 예정된 궁극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은 아니다. 리카도는 자신에 의해 주장된 공공정책, 즉 곡물의 제한 없는 수입을 허용하는 자유교역정책이 시행된다면 예상되는 ‘잠재적’ 성장경로는 변경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성장은 (공업부분의 확장 등에 기초하여) 무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²⁷⁾ 이처럼 정채상태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리카도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자연법칙의 성격을 띤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다양한 변수, 예컨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정책의 집행 등에 의해서도 그 잠재적인 가능성의 실현이 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VI. 요약 및 결론

18세기말과 19세기 중반의 산업혁명기에 경제학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한 고전과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국부와 경제성장의 문제는 핵심적인 연구과제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의 동학과정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주목했던 경제발전의 귀결로서의 정채상태는 후일 경제학설사가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리카도에 의해 제시된 동학과정의 거시적 설명은 정채상태로의 추이에 관한 ‘이론’으로서 맬서스의 인구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진보상태로부터 정채상태로 나아가는 경제의 성장경로를 묘사했다. 스미스의 경우는 리카도처럼 진보상태에서 정채상태로의 이행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27) Caravale and Tosato(1980, p. 46)는 리카도의 소위 “비판주의”가 그가 참여하였던 정책논의에 있어서 ‘도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발전의 제유형 중에서 진보하는 경제 이외에도 정체 및 퇴보형의 경제단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전파 문헌에서 정체상태에 대한 이러한 언급 또는 정체상태로의 추이를 제시한 동학이론의 존재는, 일견 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정체상태가 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가피하게 비관론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체상태를 미래에 도래하게 될 현실 내지는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파악하는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고전파의 정체상태를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분석도구 내지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념 정도로서만 해석하는 대립적인 입장도 존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파 경제학의 동학이론에서 성장의 귀결이라고 인식된 정체상태의 성격과 의미를 그 방법론을 바탕으로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미 언급한 고전파의 정체상태의 개념을 둘러싼 상당한 논란과 공방은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방법론²⁸⁾ 및 (내생적 특성을 지닌 변수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함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본 연구는 고전파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녔던 스미스와 리카도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17세기 이후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학문의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방법론적 지향 속에서 (우연하고 일시적인 요인을 배제한) 경제현상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일반원리 또는 이론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았다. 둘째,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한 일반원리 또는 이론의 탐구는 (귀납적 방법보다는) 가설-연역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설-연역적 방법은 소수의 전제 및 보조가설을 통해 일종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특정 주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예측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셋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가설-연역적인 방법에 의해 일반원리 또는 이론을 추구하고 예측적 함축사항을 도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현실의 개방성, 가변성 및 상대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

28) 소위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오해 내지는 이해의 불충분이 고전파 방법론과 정체상태에 대한 해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경제이론의 성격과 용처에서도 유사한 근원을 가진 오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고전과 방법론의 이러한 측면은 가설-연역적 방법에 구축된 경제모형이 실은 경제현실의 단순화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제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적 의미가 시공을 초월하여 엄밀하게 작용될 수 있는 자연법칙 또는 필연성을 띤 예언과는 그 성격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의 틀 내에서 정부에 의한 공공정책의 내용과 적정성에 대한 의미가 상당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넷째, 방법론적 관점에서 스미스와 리카도에 의해 견지된, 사회현실에 대한 주관적 확신의 성격을 지니는 비전(vision)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고전과 경제학자는 사회진보의 상태를 자연적 경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비전과 신념은 그들이 제기한 정제상태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요약된 바와 같은 고전과 경제학자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고전파의 정제상태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현실의 개방성을 인정함에 따른 정제상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과학자의 관심은 연역적 방법론에 기초한 법칙적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었지만, 이러한 법칙적 관계가 현실 또는 실제적 차원에서 절대적 보편성을 지닌다고 파악되지는 않았다. 이는 고전파의 방법론이 모형(model)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인식하였다는 것으로서, 한편으로 경제모형 내에서 구축된 주요 변수간의 법칙적 인과관계를 통해 실제 경제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일반원리 또는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모형 내에서 가정되지는 않지만) 사회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여타 변수 및 대항요인(countervailing factors)의 영향력을 동시에 간파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전파의 정제상태는 모형상 전제된 가정과 전제들이 실제로 충족되고 작용했을 경우 실제로 도래할 수 있는 현실로서 나타난다.

둘째, 이와 같은 논리선상에서 고전파의 정제상태의 성격은 자본주의 사회가 장차 필연적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암울하고 비참한 사회에 대한 예언도 아니었으며, 또는 이론적 차원의 단순한 분석도구도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고전파 정제상태의 정확한 성격은 사회현실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경향성, 즉 사회체계의 개방성 속에서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하나의 현실적 모습이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는 산업혁명의 격동기에 지속적 사회발전과 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고전과 경제학자들이 공공정책적 관점

의 해법 제시에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이기도 하다.²⁹⁾

■ 참고 문헌

1. 장오현, "사회진보와 복지에 관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 『존 스튜어트 밀 연구』, 민음사, 1992.
2. Agassi, J., "The Nature of Scientific Problems and Their Roots in Metaphysics," in M. Bunge(ed.), *The Critical Approach to Science and Philosophy*, 1964, pp. 189 ~ 211.
3. Blaug, M., *Ricardian Econom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8.
4. ———,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rd ed.), 1978.
5. ———, "What Ricardo Said and What Ricardo Meant," in G. A. Caravale(ed.), *The Legacy of Ricardo*, Oxford: Basil Blackwell, 1985, pp. 3~10.
6. Caravale, G. and D. Tosato, *Ricardo and the Theory of Value, Distribution and Growth*,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7. Deane, P., *The Evolution of Economic Idea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8. Eltis, W. A., "Adam Smith's Theory of Economic Growth," in A. 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426~454.
9. Gide, C. and C. Rist, *A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London: George G. Harrap, 1915.
10. Glass, J. C. and W. Johnson, *Economics: Progression, Stagnation or Degenera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9.
11. Hanc, L. H., *History of Economic Thought*, New York: Macmillan, 1949.
12. Heilbroner, R., "The Paradox of Progress: Decline and Decay on The Wealth of Nations," in A. 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524~539.
13. Heilbroner, R., *The Worldly Philosophers*, New York: Simon & Schuster(6th ed.), 1986.
14. ———, "Analysis and Vision in the History of Modern Economic Thought," *Journal of*

2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자국이 보유한 자연자원의 한계 또는 고갈로부터 경제정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리카도는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서 경제상태가 논의되는 임금론(5장)과 이윤론(6장)에 이어 바로 다음 장(7장)에서 외국무역론("On foreign trade")을 기술하고 있다.

- Economic Literature*, Vol. 28, 1990, pp.1097~1114.
15. Hollander, S., *The Economics of David Ricardo*,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79.
16. ———, "The Economics of David Ricardo: A Response to Professor O'Brien," in *Wood*(1994), Vol. 5, 1982, pp. 233~258.
17. ———, "On Malthus's Population Principle and Social Reform," in M. Blaug(ed.), *Pioneers in Economics*, Vol. 16, 1986, pp. 174~222.
18. ———, *Classical Economics*, Oxford: Blackwell, 1987.
19. Kolb, F. R., "The Stationary State of Ricardo and Malthus," in *Wood*(1985), Vol. 1, 1972, pp. 235~250.
20. Lawson, T., *Economics and Reality*, London: Routledge, 1997.
21. Lowe, A., "The Classical Theory of Economic Growth," *Social Research*, Vol. 21., 1954, pp. 132~141.
22. ———, "Adam Smith's System of Equilibrium Growth," in A. 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415~425.
23. Meek, R. L., *Social Science and the Ignoble Sav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24. Mill,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25. Myint, H., "Adam Smith's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velopment", in *Wood*(1984), Vol. 3, 1977, pp. 510~528.
26. North, D.,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Vol. 17, No. 9, 1989, pp. 1319~1332.
27. O'Brien, D. P., *The Classical Economists*, Oxford: Clarendon Press, 1975.
28. ———, "Ricard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David Ricardo," in *Wood*(1994), Vol. 5, 1981, pp. 159~194.
29. Redman, D., *The Rise of Political Economy as a Science*, London: MIT Press, 1997.
30. Reid, G. C., "Disequilibrium and Increasing Returns in Adam Smith's Analysis of Growth and Accumul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9, 1987, pp. 87~106.
31. Ricardo, D., *Works of David Ricardo*, edited by P. Sraff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32. Richardson, G. B., "Adam Smith on Competition and Increasing Returns", in A. 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350~360.
33. Roll, E., *A History of Economic Thought*, London: Faber and Faber, 1953.
34. Samuelson, P., "The Canonical Classical Model of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6, 1978, pp. 1415~1434.
35. Schumpeter, J.,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36. Skinner, A. S., *A System of Social Science*, Oxford: Clarendon Press, 1979.

37. Smith, A.,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edited by W. P. D. Wightma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980.
38. ———, *Lectures on Jurisprudence*, edit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978.
39.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 H. Campbell and A. S. Skinner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776.
40. Spengler, J., "Adam Smith's Theory of Economic Growth," in *Wood* (1984), Vol. 3, pp. 110~141, 1959.
41. Watkins J. W. N., "Confirmable and Influential Metaphysics," *Mind, N. S.*, Vol. 67, 1958, pp. 344~365.
42. West, E. G., "Ricardo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Wood* (1994), Vol. 5, 1982, pp. 286~305.
43. Winch, D., *Riches and Pov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44. Wood, J. C.,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London: Croom Helm, 1984.
45. ———, *David Ricardo: Critical Assessments*, London: Croom Helm, 1985, 1994.
46. Wrigley, E. A., "The Classical Economists, the Stationary State,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 D. Snooks (ed.), *Was the Industrial Revolution Necessary?*, London: Routledge, 1994, pp. 27~42.

Economic Growth and the Stationary State in Classical Economics : A Methodological Reappraisal

Kwangsue Kim*

Abstract

The nature of the "stationary state" of classical economics has been one of the issues discussed by a number of historians of economic thought. This paper aims to bring its nature and meaning to light again on the basis of examining the methodology of classical economists, especially of Adam Smith and David Ricardo. They as social scientists were concerned with setting up general principles or theories in terms of the hypothetico-deductive method. But they were also ready to recognize open social systems and the role of state as an endogenous variable in their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se mean that for them the stationary state was not an imminent historical necessity nor a conceptual device, but a potential reality or a tendency which may be in play at the level of appearances, yet without being realized in any particular outcome.

Key Words: stationary state of classical economics, Adam Smith, David Ricardo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